

2018 소방직 국어 해설 (A형)

제공 : 유두선 선생

1. 개인적으로 언어적 약속을 바꾸려 하고 있다. 언어는 사회와 언중의 약속이므로 개인이 배꿀 수 없다. 이것은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한다.

정답 ②

2. ④ ‘이 몸’은 절개를 지키는 자신을 나타내고, ‘님’은 절개를 다짐하는 대상이다.

정답 ④

3. ㉠의 ‘거미’는 고유어

〈오답풀이〉

㉠ 국경(國境) ㉡ 도시(都市) ㉢ 순식간(瞬息間)

정답 ②

4. ④ 산에 살고 싶다는 자연 친화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과의 거리감 유지는 잘못되었다.

〈오답풀이〉

① 자연친화의 삶의 태도로 세속과는 거리를 두는 탈속적인 삶을 노래

② ‘살아라 한다’라는 문장 구조를 일정하게 반복하는 통사율

③ 산이 화자에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즉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정답 ④

5. 국가 지정 문화재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누어 각각을 설명하고 있다.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나누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은 원래 구분이고 하위개념에서 상위개념으로 묶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은 분류이다. 그런데 구분이 없을 때는 ‘분류’를 골라도 된다.

정답 ①

6. ③ ‘재즈’가 바른 표기

〈오답풀이〉

① 카페 – 된소리 표기를 쓰지 않는다.

② 비전 – 지, 초 뒤에서는 이중모음을 쓰지 않는다.

④ 슈퍼마켓이 바른 표기

정답 ③

7. ② 서술어가 2개일 때 뒤에만 높임 표현을 한다.

〈오답풀이〉

① 사물까지 높이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다.

③ ‘게시다’는 직접높임에 쓴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말씀 하시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④ 여쭙어 → 물어

정답 ②

8. ① ‘새’는 뒤에 오는 명사 ‘신발’을 수식하는 관형사

〈오답풀이〉

②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③ 동사를 꾸미는 부사

④ 부사를 꾸미는 부사

정답 ①

9. 판소리에 대한 국문학사 문제이다. ①의 ‘만분가’는 ‘조위’가 귀양가서 쓴 유배 가사이다.

정답 ①

10. ④ 양쪽 문장은 대조적 관계로 대등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 두 문장이 서로 조건이 제시되는 종속적 이어진 문장이다.

정답 ④

11. ③ 7자씩 4줄이기 때문에 7언 절구에 해당한다. 7언 율시는 8줄로 이루어졌다.

정답 ③

12. ① 마부위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꾸준히 노력하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뜻

〈오답풀이〉

② 설상가상 :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잇달아 일어남.

- ③ 어부지리 : 두 사람이 싸우다 제3자가 이득을 봄
- ④ 상전벽해 :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의 비유.

정답 ①

13. ③ 가+아서 → 가서 가 된 것은 어간의 '아'와 어미의 '아'에서 어미의 '아'가 탈락된 형식이다.

정답 ③

14. 형태소는 각 품사로 나누고 동사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야 한다.

정답 ④

15. 나. '만큼'은 명사 뒤에서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르. '입니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명사에 붙여 쓴다.
 기과 드은 바르게 띄어 썼다.

정답 ②

16. '어떤 질문이냐'를 묻는 것은 글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다.
 1~3단락은 후진국의 실정
 4~6단락은 공정무역으로 후진국을 돕자
 7~9단은 우리나라의 경우 즉 공정무역의 시작과 현재의 실태를 말하고 있다.
 공정무역의 시작과 현재 실태를 말하고 있다.

정답 ④

17. ④ 8단락에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정 무역 운동임을 말하고 있다.

정답 ④

18. ④ 의심을 품는 것은 회의(懷疑)에 해당한다.

정답 ④

19. ④ 산봉우리에게 말을 거는 표현이니 의인법이다. 직유법은 아니다.
 〈오답풀이〉

- ① 이랑이랑, 쫓길 뿐, 쫓을뿐의 반복
- ② 들길-마을-들길 (시선이동)

③ 붙어지고-푸르러졌다(색채대비)

정답 ④

20. 강철로 된 무지개는 서로 모순된 표현으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정답 ④

〈총평〉

2018년 소방직 시험의 유형은 문법 8문항 문학 6문항 독해 3문항 한자 3문항이 출제되었다. 문법은 기본을 잘 닦은 학생들은 무난히 풀었겠지만 기존의 소방직 문제보다는 세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학이 많이 출제된 것도 유념해야겠다. 국문학사 문제도 출제 된 것에 주의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자는 1문항은 한자성어이고 나머지 2문항은 어휘문제로 보아도 될 문제였다. 공무원 필수 한자를 익히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해가 긴 지문이 나와서 당황했을 것이다. 체계적인 독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아주 좋아졌다. 다음 시험은 이것보다는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좋으면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고득점을 받을 것이다.